

불황에도 SUV 인기 지속... 스포티지·투싼 등 판매 상승세

완성차업계, 시장변화 맞춤 전략

스포티지, 스마트 기술로 시장 반격
조용한 주행위한 회생제동·소음 개선
투싼, 인기 트림·옵션 패키지 신설
고객 선호사항 기본화로 상품성 강화

국내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을 두고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 시장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완성차 업계도 시장 흐름에 맞춘 전략을 내놓고 있다. 과거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경차가 잘 팔린다

는 공식도 점차 깨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준중형 SUV 시장 라이벌인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이 각각 부분변경과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 기아 스포티지가 부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투싼에 다소 밀렸지만 신차 출시로 분위기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현대차·기아의 1~10월 국내 전체 판매량(109만642대)의 약 10%가 스포티지와 투싼이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싼은 16%, 스포티지



현대차 2025 투싼 전면.

는 6%가량 판매량이 늘었다.

국내 준중형 SUV 시장 공략을 위해 기아가 3년여 만에 출시한 신형 스포티지는 실내외 디자인을 완전변경 수준으로 바꿨다.

앞쪽 중간주행등을 수직 형상으로 하고 그릴은 검은색 수평형 패턴으로 깔끔한 인상을 준다. 휠 디자인과 뒷쪽 램프·범퍼 디자인도 손봤다. 송풍구를 수평으로 디자인해 실내를 넓어 보이게 했고 D컷 스티어링휠을 적용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터 출력을 개선했다. 도로 상황 등에 따라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으

로 제어하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용했다. 램프·흡차음재를 보강해 조용해졌다.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새로 적용했다. 판매가는 ▲1.6터보 가솔린 2836만원부터 ▲2.0 LPi 모델은 2901만원부터 시작한다. 1.6터보 하이브리드는 3315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투싼 연식변경 모델로 경쟁에 나선다. 2025 투싼은 트림별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옵션 패키지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전체 트림에 실내 소파기를 기본 탑재한다. 엔트리 트림인 모던에는



기아 더 뉴 스포티지.

2열 에어벤트,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적용한다.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는 2열 폴딩 레버, 스마트폰 무선충전, 2열 세이프티 파워 인도어 등 편의사양을 기본 탑재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신규 옵션 패키지 '베스트 셀렉션 III·IV'를 신설했다. III는 1.6터보 가솔린, IV는 1.6터보 하이브리드, 2.0디젤 대상이다. 이 패키지는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등 고객 선호 옵션을 묶은 것으로 개별 옵션을 선택할 때보다 20만원 저렴하다.

현대차는 2025 투싼의 모던과 인스퍼

레이션 트림 판매가는 동결했고, 프리미엄 트림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판매가는 ▲1.6터보 가솔린 2771만원부터 ▲2.0 디젤 3013만원부터 ▲1.6터보 하이브리드 3213만원부터다.

한편 경기 불황에 주목받았던 경차 시장은 오히려 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경차는 5838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45.7% 급감했다. 올해 1~10월 누적 경차 판매량은 8만 3883대로, 전년 동기 대비(10만2485대) 18.2%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전선, 첨단 설비로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

KG스틸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양사 경험·노하우로 시너지 창출 충남 당진에 생산 클러스터 조성

대한전선과 KG스틸이 해저케이블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한전선은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KG스틸과 상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2공장(이하 해저 2공장) 건설을 위해 KG스틸의 토지를 매입하고, KG스틸은 부지 대금으로 대한전선의 전환사채(이하CB)를 인수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미래가치 제고를 공동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해저 2공장 건설을 위해 매입하는 부지는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 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약 21만 5000㎡(약 6만5000평)의 토지다. 현재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맞닿아



(왼쪽부터)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광정현 KG그룹 경영전략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전선

있고 주요 생산 시설인 당진케이블공장, 솔루션공장까지 근접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생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지중과 해저, 전력과 통신, 소재와 완제품 등 케이블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한 지역에서 생산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KG스틸은 부지 대금 1100억원을 C B로 지급받는다. 대한전선의 미래 가치와 해저케이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대한전선은 지난 3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재원과 금번 CB발행을 통해 해저 2공장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글로벌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맞춰 620kV(킬로볼트)급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이 가능하도록 VCV(수직연속압출 시스템)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북미 시장에서의 시너지 창출도 모색한다. 두 회사가 수십 년간 북미 시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미국 수출 확대 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 실증 성공

VPN 서비스 이중보안 제공

KT가 정부 데이터망에서 이중 보안을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 기술을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KT가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VPN서비스'를 위한 실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송망에서 고객 구간까지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을 적용했다. 앞으로 KT의 VPN(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안전한 이중 보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 양자 보안 실증망은 전송망에 VPN 기술을 결합한 형태다. 전송망에는 QKD(양자 키 분배) 방식이 적용돼 물리적 회선의 도청 시도가 원천 차단된다.

VPN기술에는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PQC(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했다. 이번 실증은 KT가 구축한 국방부-국토교통부 모사망에서 약 2주간 진행됐다. 실증에서 KT는 양자암호로 전송망을 보호하고, 해당 망에서 국방부-국토부 간 주고받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양자보안 VPN으로 보호했다.

KT는 양자보안 VPN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과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부-국토부 모사망을 KT연구개발센터와 국민대에 구현했으며, 전체 실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하는 양자정보통신기술 실증 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리필 활성화·탄소감축으로 ESG 실천

네이버·로레알, 친환경 파트너십

네이버는 로레알코리아와 친환경적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 생태계 내 판매자와 이용자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업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로레알코리아와 함께 네이버쇼핑에서 리필제품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텍서리 라운지 리필워크' 캠페인을

개최해 소비자들이 뷰티 상품 구매 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양사는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로레알코리아가 네이버 광고 집행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친화적인 광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번 협업을 기반으로 브랜드사가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혜민 기자 hyem@

OCI, DB하이텍 부천공장 반도체 인산 공급

국내 반도체 소재 시장 점유율 확대

OCI가 DB하이텍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반도체 인산의 품질 및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OCI가 이달부터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DB하이텍의 부천공장에 반도체 인산을 초도 납품한다고 19

일 밝혔다.

OCI는 지난 2007년 반도체 인산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군산공장에서 연간 2만 5000톤 규모의 인산을 생산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키파운드리 등 국내 반도체 칩메이커를 대상으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OCI가 생산하는 반도체 인산은 반도체 제

조 공정 중 웨이퍼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로,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제거하여 회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B하이텍은 8인치 파운드리 전문 기업으로, 부천(FAB1)과 상우(FAB2)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DB하이텍은 올해 상반기 생산능력 향상을 완료하여, 부천공장은 월 9만 1000장, 상우공장은 월 6만 3000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